

日 수출규제 확대에 지역 기업들 비상

반도체 이어 자동차·석유화학·광산업 등 전 산업 확산 우려 기초소재 취약한 지역경제 직격탄... 정부 "가용자원 총동원"

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피해가 전 산업으로 확산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1100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관련 영향을 분석, 주시하고 있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의 영향이 미미했던 광주·전남지역 기업들도 규제 품목 확대 소식에 비상이 걸렸다. 주력업종인 자동차·석유화학·전자부품·광산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추가 규제면 지역경제 직격탄= 지역 경제계는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이어 기초소재 수출규제 품목을 추가하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상 품목이 자동차·석유화학·전자부품·공작기계 등 지역 주력업종이 대거 포함되는

맞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이 추가되고 장기화되면 지역경제는 울스톱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동차·화학·공작기계 분야 기초소재 일본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초소재는 매우 취약하다. 기술력이 일본에 비해 10~20년 뒤쳐져 있다"면서 "자동차·화학·공작기계 분야의 기초소재가 일본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광주·전남 주요 기업들은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광주상의는 지역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 규제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TV·스마트폰 액정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반도체 부품인 포토 리지

스트(감광액·PR),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HF)) 규제와 관련하여는 광주·전남 경제에는 영향이 미미했다.

반도체 생산업체가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한 곳 뿐인데다, 규제 품목이 엠코코리아 생산 아이টে에 직접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반도체 수출 규제는 웨이퍼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전남 대표적 반도체 기업인 엠코코리아는 포토 리지스트를 30%정도 일본에서 수입하지만 대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 남아있는 재고도 여유가 있고, 향후 장기적으로 수출 규제가 지속되더라도 일본이 아닌 국내나 유럽, 북아메리카 등에서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엠코 측의 설명이다.

◇정부, "가용 자원 총동원"= 정부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처음 성사된 한일 양자 실무협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정부가 한층 더 광범위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부는 대일의존도가 큰 소재부품 개발 사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일본의 추가 보복 등 장기전에 대비해 '상용 조치'를 즉시 꺼낼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정부는 대미 외교전, 일본을 상대로 한 양자 협의, 제3자를 통한 진실규명 제안 등 외교적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예산·세제·행정절차 최소화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특히,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을 최소 1200억원 이상 증액하기로 하고 이번 주 초 구체적인 사업 목록을 확정할 방침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중흥동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분양

18일 1순위 청약 전 가구 남향·100% 지하 주차

제일건설(주)은 광주시 북구 중흥3구역 전남대 후문 인근에 재개발 아파트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투시도)를 공급한다. 견본주택은 서구 죽봉대로 53(화정동 11-14)에 마련, 지난 12일 문을 열었다. 입주는 2022년 2월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2개 블록으로 구성됐으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7개 동, 총 1556가구 대단지다. 이중 857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은 S-1블록에서 ▲84㎡ A형 255가구 ▲84㎡ B형 390가구 ▲109㎡ 48가구 등 693가구이며, S-2블록에서 ▲39㎡ 7가구 ▲59㎡ 134가구 ▲74㎡ 23가구 등 164가구다.

청약 일정은 1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8일 1순위, 19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25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다음 달 6-8일 사흘간 분양계약을 진행한다.

최근 광주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는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했다는 게 인상적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200만 원이

다. 1순위 청약 조건이 비교적 까다롭지 않고 전매 제한기간도 6개월로 짧다.

이 아파트는 제일풍경채만의 특화설계를 도입한다. 16~17% 낮은 건폐율에 전 가구 남향 위주로 배치해 자연환기와 일조량을 극대화했다. 또 100% 지하주차시스템을 도입, 지상에 차 없는 단지로 조성한다.

전 가구 최첨단 IoT 시스템도 도입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어디서든 스마트 기기 하나면 집안 가전 제품을 제어할 수 있고(IoT 연동 가전 별도 구매시) 엘리베이터 호출, 무인택배 도착알림, 에너지사용량 관리 등이 가능해진다.

캘러리가든, 플로럴가든, 웰빙가든, 풀밭아트트리움, 멀티필드 등 다양한 테마로 조성되는 조경시설은 자랑거리다. 실내골프연습장, 휘트니스 등 커뮤니티시설도 마련된다.

교육·교통 환경이 우수하고 생활편의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광주를 순환 연결하는 지하철2호선이 예정돼 있어 더블역세권 입지다. 특히 전남대와 광주역 주변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지여서 개발 호재가 더해지고 있다.

분양 문의, 1899-2195.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

긴급 안정자금 지원

중기부 '애로신고센터' 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경영안정 자금과 전문가 컨설팅 등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중기부는 15일부터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수출규제로 매출 감소 등 구체적인 피해를 본 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일본수출규제애로센터 062-360-9194.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지난 12일 광주시 동구 전남여고에서 열린 기아차 광주공장 '드림 토크 콘서트'에서 강사로 초청된 대한민국 1호 쇼핑호스트 유난희씨가 강연을 마친 뒤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제공)

기아차 광주공장, 전남여고서 '멘토 드림토크콘서트'

쇼핑호스트 1호 유난희씨 강연 청소년에 꿈·희망·진로 도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지난 12일 광주시 동구 전남여자고등학교에서 멘토 강연 프로그램인 '드림토크 콘서트'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드림토크콘서트'는 기아차 광주공장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인 '기아챌린지 콘서트'의 하나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멘토들의 특별 강연 프로그램이다. 이날 토크콘서트 주인공은 대한민국 1

호 쇼핑호스트 유난희 씨였다. 유씨는 어린이시절 아나운서를 꿈꾸며 8년 동안 22번의 아나운서 시험에 도전했지만 결국 아나운서가 되지 못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방송을 하고 싶다는 꿈 하나로 쇼핑호스트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방송무대 설 수 있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유씨는 학생들에게 "때로는 자신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씨는 학생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쇼핑호스트라는 직업에 대해 안내하고,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직업에 대한 확실한 가치관과 끊임없는 노력이었다고 전

했다. 이어 멘토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여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진로와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함께 나눴다.

기아차 관계자는 "실패에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한 유난희 멘토의 강연을 통해 진로와 꿈을 찾고 이뤄가는 과정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기아차 광주공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진로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는 후원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부가세 25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광주국세청, 47만여명 대상

광주지방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확정신고·납부 대상자는 47만7000명(개인 일반과세자 38만6000명·법인사업자 9만1000명)이다.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신고 전에 맞춤형 도움 자료를 3만4000명에게 제공하는 등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납세자는 자기검증 서비

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단계에서 신용카드 매회세액과 과다 공제 여부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또 개인사업자 5만6000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해의 투자 후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경영 애로 사업자 납세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며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로또복권

(제1867회)

| 당첨번호 | | 2등 번호숫자 | |
|------|----------------|---------------|-----------|
| 14 | 17 19 22 24 40 | 41 | |
| 등위 | 당첨금(원) | 당첨자수 | |
| 1 | 6개 숫자일치 | 3,933,755,250 | 5 |
| 2 | 5개숫자+보너스숫자일치 | 57,511,042 | 57 |
| 3 | 5개 숫자일치 | 1,507,186 | 2,175 |
| 4 | 4개 숫자일치 | 50,000 | 109,516 |
| 5 | 3개 숫자일치 | 5,000 | 1,820,552 |

이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9년 7월호

6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스포츠와 문화의 물결 속으로

-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다양한 문화행사들
- 광주의 문화와 정신 담은 개폐회식 기대

수영선수권대회의 기념
청년 작가 13인전

DIVE INTO YOU

여름기획
폭염·갑작 놀랄 시원함, 계곡 명소
관광 천국 광에서의 색다른 여행

예향 초대석

한국영화 100년 위원장 이장호

"새 100년 창작 밑거름 뿌릴 시기"

워라벨시대, 문화관광이 뜬다④
문화로 계절관광
패러다임 바꾼 강원도

제64회 호남예술제

부문별 영광의 수상자 얼굴과 수상작품들

강제운 시인의 남도의 성과 토속음식⑥
삼사람들의 '소울푸드'
하의도 냉면요탕

예향이 만난 이 사람
햄버거집 사장, 야구 해설자로 도전 김병현
영화 '오버 데어'의 장민승·정재일
고향 해남서 첫 개인전 가진 재물 화가 한홍수

백제문화의 대중문화 X파일⑥

연예인의 성형 열풍 심화

화제의 전시
국립광주박물관
개관 40돌 기념 전시
'흑백의 향연'

백제문화의 대중문화 X파일⑥

붉은 황토 꿈틀대는 갯벌 생명의 에너지 무인 移安

맨발로 갯벌의 생명 느끼며 힐링
드넓은 화산백련지 연꽃 전시